

먹다 숙어동사구문의 통사적 기술

홍재성

1. 머리말

우리는 여기서¹ 한국어 일반사전 또는 동사구문 사전에 가능한 한 언어학적 근거에 입각한 동사항목의 기술을 수록하기 위하여, 동사 먹다의 다양한 용법을 체계화하는 시도의 틀 안에서 그 관용표현의 일부로서의 숙어동사 구문을 문제삼아 보려고 한다. 이 글은 먹다의 기능동사 구문을 주로 다룬 홍재성 1992b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 전체는 공시적 기술 우위의 대규모 한국어 사전이나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 사전의 편찬을 위한 어휘자료 구축작업의 한 단편이 되는 것이다. 이 작업은 현대 한국어의 핵심적인 동사 어휘를 목록화하고 그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가능한 한 통사적 논의에 의거한 용법의 분할과 체계화, 각 용법에 대응되는 주요 통사적·어휘적 속성의 분석을 시도하여 사전편찬 자료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비교적 이론중립적인 어휘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성과는 특히 한국어 동사에 대한 더 깊은 순수언어학적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경험적 자료로 활용되거나, 또는 한국어 자동처리를 위한 전산사전 구성자료의 일부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글은 이와 같은 성격의 작업에 있어 동사어휘기술을 위한—정의 *définition* 작성의 문제 또는 의미정보 표상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 점에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모형과 구체적 표본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²

숙어동사구문 기술을 위해 여기서 채택한 방법론과 그것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일반적 논의는 홍재성 1992a에서 간략한 소개가 있었고, 준비 중인 별도의 글에서 좀 더 총체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일반적인 논의를 적용한 먹다 구문의 구체적인 분석과 기술에 그칠 것이다. 하지

¹ 이 글은 ‘자연언어 처리를 위한 문법과 어휘부’를 주제로 1992년 11월에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가 주최한 제26회 어학연구회/한·불공동학술회의에서 ‘자유표현, 관용표현 그리고 기능동사 구문—먹다의 경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² 홍재성 1993a, b는 빠지다를 대상으로 한 비슷한 기술의 예를 보여준다.

만 이렇게 제한된 정리작업만을 위해서일지라도 우리가 고안중인 한국어 속어동사구문의 통사적 유형의 체계를 잠정적인 형태로나마 소개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먹다 기능동사 구문의 사전적 처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앞의 글에서 우선 먹다의 복잡다기한 쓰임새를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정리하여 그 전체적 모습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는 이 동사의 가능한 구문을 일반자유동사구문/기능동사구문/보조동사구문/관용표현구문의 네 가지 큰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에 귀속될 수 있는 구체적 용법을 다시 세분화하였다. 특히 속어구문과 다양한 합성표현을 관용구문으로 한데 묶어 다른 범주의 용법과 구별하였다.

우리는 잠정적으로 관용(표현)구문을 합성표현과 속어구문을 포함하는 상위범주의 술어로 사용하였는데, 이 글에서도 이를 그대로 따르고자 한다. 합성표현은 그 내적 구성이 자유로운 통사적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전체가 하나의 단어와 같은 기능을 갖는 연속적인-구성요소의 이동이나 삭제, 특히 분리에 의한 제삼요소의 삽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연쇄를 가리키며 합성명사, 합성부사, 합성형용사, 합성동사 등의 어휘범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합성표현으로 분석될 수 없는, 문장의 구조를 갖는 불연속적 구성의 연쇄로서 통사적 서술어인 동사/형용사(또는 -이다)를 제외한 하나 이상의 고정부위-그 고정성의 정도는 다양하다-를 내포하고, 이 고정부위의 어휘요소와 서술어 사이의 결합관계가 극단적 제한성을 보이는 경우를 속어구문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속어구문은 속어동사구문, 속어형용사구문, 그리고 “-이다” 속어구문의 세 가지 하위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³

우리가 이 글에서 먹다 속어구문에 대하여 다룰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사 먹다를 내포한 가능한 속어동사구문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한정;
- 먹다 속어구문의 통사적 유형화;
- 각 유형에 속하는 개별 속어동사구문의 기술: 각 속어구문의, 고정부위의 명사를 포함한 통사구조의 기술 및 주요 어휘·통사적 속성의 분석.

2. 한국어 속어동사구문의 유형

2.1. 한국어 속어구문

속어구문은 통사적 서술어 위치에 나타나는 요소의 어휘범주에 따라 우

³ 홍재성 1992b에 소개된 먹다 용법의 자료는 이러한 시각에서 수정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속어동사구문의 경우는 물론 이 글에서 수정·보완된 기술이 소개될 것이다.

선 숙어동사구문과 숙어형용사구문을 구분할 수 있다. (1)/(2)의 문장들은 각각 두 부류의 숙어구문을 예시한다.

- (1) ㄱ. 정환이가 한 술 더 뜨네.
 ㄴ. 나는 이제 볼장 다 보았어.
 ㄷ. 철수는 새벽녘에야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다.
 ㄹ. 나는 어서 그 결과를 알고 싶어 좀이 쑤셨다.
 ㅁ. 기수도 영서에게-(서+E) 바람을 맞았다.
 ㅂ. 모두 그의 말이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 (2) ㄱ. 그는 (씩이 노랗다+통이 크다+속이 시키땄다).
 ㄴ. 그 말을 들으니 나는 눈 앞이 캄캄했다.
 ㄷ. 너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그런 짓을 다 하고….
 ㄹ. 고 녀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걸.
 ㅁ. (그 녀석+그의 말)-은 종잡을 수가 없어.
 ㅂ. 일이 그 지경이 되니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ㅅ. 태환이는 걸다르고 속다르다.

여기에 제삼의 유형을 덧붙인다면 그것은 합성명사적 성격의 고정된 명사구 구성이 -이다 앞의 위치에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이다 숙어구문이 될 것이다.⁴

- (3) ㄱ. 그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자기 얼굴에 침 뱉기)-이다.
 ㄴ. 거기는 없어지면 코당을 데다.
 ㄷ. 너는 이제 독안에 든 쥐야.

⁴ (3) ㄱ~ㄷ을 숙어구문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이다' 앞의 '땅 짚고 헤엄치기', '독안에 든 쥐' 등등 복합연쇄를 '들은 풍월', '꿀먹은 병어리', '팔 굽혀 펴기'와 같은 합성명사로 분석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그 근거로 다음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명사를 핵으로 하는 이들 복합연쇄는 합성명사와 동일한 내적 구성의 고정성·응집성을 보이지만, 전체 연쇄의 분포가 '-이다' 앞으로 제한되어 있다. 예컨대, '아주 쉬운 일'의 의미 해석을 갖는 명사적 복합연쇄 '땅 짚고 헤엄치기'는 '-이다' 구문 이외의 어떠한 구문의 명사분포 위치에도 쓰이기 어려운 듯하다.

- i) ㄱ. *나에게는 땅 짚고 헤엄치기가 걸렸다.
 ㄴ. *어려운 일은 좀 놔두고 땅 짚고 헤엄치기부터 하자.

이와 대조적으로 합성명사는 경우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체로 단일 명사와 마찬가지로 분포의 개방성을 보인다.

- ii) ㄱ. 너는 꿀먹은 병어리가 됐니? 왜 말을 안하고 있지?
 ㄴ. 태환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꿀먹은 병어리처럼 있었다.
 ㄷ. 여기 꿀먹은 병어리가 또 하나 있네.

ㄷ. 요즈음은 눈감으면 코베어 '가는 세상'이라니까.

숙어구문은 일반자유구문과 유사하게 통사적 논항의 수나 그 형태 또는 항위치의 분포적 속성 등에 따라 다양한 구성을 보이는데 그 통사구조와 숙어구문을 특징짓는 고정부위의 수나 위치에 따라 형식적인 유형화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2.2에서 숙어동사구문에 한정하여 그 가능한 유형을 일부 소개해 보겠다. 이와 같은 분류체계는 보완과 재조정이 필요한 잠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숙어구문의 통사적 기술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숙어구문의 더 심화된 언어학적 탐구를 목표로 할 때 대규모의 경험적 자료의 체계적인 축적을 위한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여기서 제시하는 한국어 숙어동사구문의 분류체계는 불어 숙어구문을 대상으로 한 M. Gross(1982, 1990, 1991)의 연구에서 착상을 얻어, 한국어 기술에 적절하게 꾸며 본 것이다.

2.2. 한국어 숙어동사구문의 형식적 유형

2.2.1. N_0 C_1 -이 V^5

- (4) 동네가 쪽-(대+E)-밭이 되었다.
- (5) 그 말에 영서는 뿔-(따귀+E)-가 났다.
- (6) 나는 너무 속이 (들여다+E)-보여서 차마 그런 짓은 못하겠다.

2.2.2. N_0 C_1 -을 V

- (3) ㄱ~ㄴ의 문장은 -이다 자유명사 구문과 달리 아니다 부정문으로의 전환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같은 제약은 숙어구문이 보이는 다양한 정도·성격의 고정성의 한 예가 될 것이다.

iii) ㄱ. *그를 끌어들이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니다.

ㄴ. "그는 이제 독 안에 든 쥐가 아냐.

우리는 이것들과 반대로 다음과 같이 아니다 부정문으로만 고정된 숙어구문의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iv) ㄱ. 영주에게 언어맞은 그의 풀은 말이 아니었다.

ㄴ. *영주에게 언어맞은 그의 풀은 말이었다.

⁵ 숙어동사구문의 형식적 기술을 위해 이 글에서 사용하는 약호는 다음과 같다.

N_i : 자유명사구, 지수 i 는 통사적 논항의 성격을 구별해 준다(N_0 는 주어, N_1 은 제 1보어 등).

C_i : 고정명사구(숙어구문을 특징짓는 고정부위의 표시). 지수 i 의 의미는 자유명사구의 경우와 동일하다.

-을⁰: 대격조사 -을 이외의 보어표지. -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정부위에서 관찰되는 어휘요소나 조사의 제한된 변이는 (X+Y) 또는 (X+Y)의 형태로 예문에서 지적하였다. 예문 (4), (5) 또는 (34), (36) 참조.

- (7) 정희는 판전만 피운다.
- (8) 그의 가게는 계속 파리를 날리고 있는 형편이다.
- (9) 기영이의 연구가 이제야 빛을 보게 되었구나!

2. 2. 3. N_0 C_1 -을⁰ V

- (10) 너 그러다가 꼴로 가려고 그러니?
- (11) 이 고기는 입에서 살살 녹는구나!

2. 2. 4. N_0 C_2 -의 C_1 -을 V

- (12) 벼룩의 간을 내먹지,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하니?

2. 2. 5. N_0 N_2 -의 C_1 -을 V

- (13) 그는 늘 남의 아픈 (데+곳)-을 (찌르는+건드리는) 말을 주저없이 한다.

2. 2. 6. N_0 N_2 -의 C_1 -을⁰ V

- (14) 기환이는 영주의 눈-(밖+E)-에 났어.

2. 2. 7. N_0 N_2 -을⁰ C_1 -이 V

- (15) 태환이도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영주에게 딱이 났지.
- (16) 기환이가 꾸민 일이 영주에게 그만 들통이 나 버렸어.
- (17) 영희는 귀자와 (손발+죽+호흡)-이 잘 맞는다.
- (18) 그 때는 모두들 땅을 사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2. 2. 8. N_0 C_2 -을⁰ C_1 -이 V

- (19) 철수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밤을 새워 가며 일을 하네.

2. 2. 9. N_0 N_2 -을 C_1 -을 V

- (20) 이 기계를 손을 좀 보아야겠는데.
- (21) 영주는 그 친구를 죽을 만들어 놓았지.

2. 2. 10. N_0 N_2 -을⁰ C_1 -을 V

- (22) 태호는 정환이와 담을 쌓고 지낸다.
- (23) 이 돈에는 손을 대지 마라.
- (24) 영주도 남편에게 늘 바가지를 긁는다.
- (25) 모두들 그에게-(서+E) 등을 돌렸다.
- (26) 그들은 태호-(의 태도+E)-를 비난하는 데에 열을 올렸다.

2. 2. 11. N_0 C_2 -을⁰ C_1 -을 V

- (27) 태호가 다 된 밤에 재를 뿌렸다.
 (28) 정환이는 늘 목에 힘을 주고 사람을 대하니까 꼴도 보기 싫어.
 (29) 영주는 그 말에 눈에 불을 켜고 덤볐다.
 (30) 그 친구 요즈음 (목구멍+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는 처지지.

2. 2. 12. N_0 N_3 -의 C_2 -을⁰ C_1 -을 V

- (31) 그 말 한 마디가 내 가슴에 못을 박았다.
 (32) 그 놈이 제 애비 얼굴에 (떡+똥)-칠을 하고 다녔지.

2. 2. 13. N_0 N_1 -을 C_2 -을 V

- (33) 요즈음 그 친구는 코빼기-(를+도) 볼 수가 없어.

2. 2. 14. N_0 N_1 -을 C_2 -을⁰ V

- (34) (그+그의 행동)-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라.

2. 2. 15. N_2 -의 C_1 -을⁰ C_0 V

- (35) 갑자기 태호가 안 오겠다는 바람에 우리 계획-(에+이) 구멍이 뚫렸다.

2. 2. 16. N_0 N_2 -에게 P -고 C -을 V

- (36) 나는 철수에게 더 이상 영주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2. 2. 17. P_c ⁶

- (37) 이게 웬 떡이나?
 (38) 입-(은+E) 두었다 뭐 하니?
 (39) 별꼴 다 보겠-(다+네+구나).

2. 2. 18. 기타유형⁷

- (40) 이것을 누구-(의+E) 코에 바르냐?
 (41) 그 정도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민다.

⁶ P_c 는 문장 전체가 고정된 숙어동사구문의 유형을 표시한다.

⁷ 현재로서는 형식적인 구조기술이 어려운 여러 유형의 숙어동사구문을 임시로 기타유형에 분류하였는데, 이들 구문을 어떻게 특징지을 것인가는 숙어구문 기술을 위한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40)~(44) 예문에서 방점부분이 고정부위가 된다.

- (42) 나는 열구리 찢러 철 받고 싶지는 않다.
- (43) 야, 이 굴비는 들이 먹다가 하나가 축어도 모르겠다.
- (44) 이 문제에 관한 한 내 동생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있으면+E) 나와 보라고 해.

3. 먹다 속어동사 구문

3. 1. 자료

동사 위치에 먹다를 내포한 가능한 속어구문을 앞에서 제시된 한국어 속어동사구문의 형식적 유형 체계를 약간 정밀화하여 기술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이 자료는 홍재성 1992b에 소개된 것을 좀 더 보완한 것이다.

3. 1. 1. N₀ C₁-을 V

[가] N₀ 국수를 먹다.

- (45) 영서야, 우리는 언제 국수를 먹게 되니?
- (46) 올해는 국수를 먹을 수 있는 거니?

[나] N₀ 눈썹밥을 먹다.

- (47) 정환이는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로 이모집에서 눈썹밥을 먹어 가며 없혀 살아야 했다.

[다] N₀ 더위를 먹다.

- (48) 기영이는 행군도중 더위를 먹고 쓰러졌다.
- (49) 개도 더위를 먹었는지 늘어져서 꼼짝도 못하는데.

[라] N₀ 콩밥을 먹다.

- (50) 정희는 실권한 뒤 이 년간 콩밥을 먹었다.

[마] N₀ 한술밥을 먹다.

- (51) 우리는 지금까지 삼 년간이나 한술밥을 먹으며 지내왔다.
- (52) 나는 어린시절 영서와 (함께+E) 한술밥을 먹고 자랐다.

[바] N₀ 밥술이나 먹다.

- (53) 그 친구 이제 밥술이나 먹고 지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

3. 1. 2. $N_0 N_2-C_1$ -을 V

[사] N_0 (외국+서울…)–물을 먹다.

(54) 그 녀석 외국물 좀 먹었다고 잘난 체 하는 꼴이라니….

3. 1. 3. $N_0 N_2$ -을⁰ C_1 -을 V

[아] $N_0 N_2$ -에게 물을 먹다.

(55) 기환이는 영주에게 완전히 물 먹었지, 뭐.

[자] $N_0 N_2$ -에게-(서+E) 꿀탕을 먹다.

(56) 철수는 태환이에게서 꿀탕을 먹었다.

(57) 너 그러다가 그 녀석한테서 꿀탕 (먹는다+먹을거야).

[차] 1. $N_0 N_2$ -에-(서+E) 미역국을 먹다.

(58) 정희는 두 번씩이나 입사시험에 미역국을 먹었다.

(59) 첫 번 시험에서 나도 미역국을 먹었었지.

[차] 2. $N_0 N_2$ -(에서+의) 녹을 먹다.

(60) (나라+국가)-(에서+의) 녹을 먹는 처지이니 이만한 봉사는 당연히 해야지.

[카] $N_0 P$ 데-에 애를 먹다.

(61) 철수는 기영이를 설득하는 데에 꽤나 애를 먹었다.

3. 1. 4. P_c

[타] 1. (62) 엇이나 먹어라.

[타] 2. (63) 너 뭐 잘못 먹었니?

3. 1. 5. 기타유형

[파] 1. (64) 냉수 (먹+마시)-고 속 차려.

[파] 2. (65) 잘 먹고 잘 살아라.

3. 2. 먹다 속어구문 기술의 문제

우리는 위와 같이 우선적으로 16개의 먹다 속어동사구문을 한정하였다. 이들 16개 구문은 서로 명확히 구분되고 일정한 의미 해석에 대응되어 그

하나하나가 사전에서 숙어동사 먹다의 하위표제어로 독립된 기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구문은 숙어동사구문으로서 다음의 공통된 두 가지 속성을 보인다.

(66) ㄱ. 한 부위 이상의 통사위치의 고정성: 이 점은 해당 부위 명사의 분포의 고정성(동의어나 하위어 또는 동위어 cohyponyme 대치 불가능)이나 한정사/수식어 첨가 제약에 의해 확인된다.^{8,9}

ㄴ. 동사와의 결합관계의 제한성: 해당 숙어표현의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정부위 명사는 동사 먹다와의 결합만이 가능하다.¹⁰

우리는 숙어동사 먹다의 형식적 기술을 위한 첫 단계로 이들 16개 구문을 그 통사적 유형에 따라 다음의 다섯 부류로 나누었다.

⁸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보라.

v) ㄱ. 애들은 (더위+폭염+폭서)-를 견디기가 정말 고역이었다.

ㄴ. 애들은 (더위+*폭염+*폭서)-를 먹고 모두 축 늘어져 있었다.

vi) ㄱ. 기환이는 한동안 (콩밥+팥밥+보리밥+잡곡밥)-만 먹었다.

ㄴ. 정희는 삼 년간 서대문 형무소에서 (콩밥+*팥밥+*보리밥+*잡곡밥)-을 먹는 신세였다.

vii) ㄱ. 애들은 (그+찌는 듯한+살인적인) 더위를 잘도 견뎠다.

ㄴ. 애들은 (*그+*찌는 듯한+*살인적인) 더위를 먹고 쓰러졌다.

우리는 현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쌍의 문장들에서 직설적 의미해석의 전형적인 자유구문의 ㄱ 문장들과 대응되면서도-관계적 표현으로는 그 비유적 의미해석으로-, 고정부위를 한정할 수 없는 ㄴ의 문장을 자유구문으로 기술한다.

viii) ㄱ. 영희는 철수의 가방을 짓밟았다.

ㄴ. 영주는 태환이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ix) ㄱ. 기영이는 서류를 구겨서 휴지통에 버렸다.

ㄴ. 기영이는 그 실수로 체면-(이+을) 구겼다.

x) ㄱ. 태환이는 너무 추워서 털모자를 뒤집어 쓰고 나갔다.

ㄴ. 태환이는 정희의 죄를 뒤집어 썼다.

xi) ㄱ. 철수는 부상으로 무릎-(이+을) 상했다.

ㄴ. 철수는 이 말에 감정-(이+을) 몹시 상했다.

viii)~xi)의 ㄴ 문장에서 자존심 등의 명사는 v)~vii)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은 고정명사의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viii)~xi)의 ㄱ~ㄴ 문장들을 각각 짓밟다, 구기다, 뒤집어 쓰다, 상하다 동사의 구별되는 두 용법으로 특징짓는 입장을 택한다.

⁹ 이들 고정명사에 대해서는 대명사화나 의문문/분열문 초점화도 불가능하다.

xii) ㄱ. *기환이는 영주에게 무엇을 먹었니?

-물을 먹었지.

ㄴ. *정희가 입사시험에서 세 번이나 먹은 것은 미역국이라니까.

¹⁰ 이 점을 확인시켜 주는 예를 하나만 들어본다.

xiii) ㄱ. 그 친구도 미국물을 좀 (먹은+*마신) 모양인지 꽤나 거드름을 피우네.

ㄴ. 기환이는 영주에게 완전히 물 (먹었지+*마셨지), 뒤.

- I. N_0 C_1 -을 V
 II. N_0 N_2 - C_1 -을 V
 III. N_0 N_2 -을^o C_1 -을 V
 IV. P_c
 V. 기타유형

I은 하나의 -을 보어만을 용인하면서 이 연쇄가 고정부위를 이루는 유형이다. 형식적으로는 (밥을) 먹다, (책을) 읽다, (태환이를) 때리다 등의 일반자유동사 구문과 평행적이다. 고정부위에 분포되는 명사에 따라 [가]~[바]의 6개 속어구문을 구별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명사의 자모순에 따라 이들 구문을 배열하였고, 보어 뒤 후치사가 특정한 특수조사로 고정되어 있는 밥술이나 먹다를 마지막에 두었다. 각각의 구문은 상이한 어휘·통사적 속성의 모임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속어구문의 사전적 기술을 위해서도 일반 자유동사구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형적 속성을 넘어서 각 개별 구문을 특징지을 수 있는 좀 더 세밀한 어휘·통사적 속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I유형에 속하는 먹다 속어 구문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해 보자.

- N_0 의 분포적 특성

[가]~[바] 구문 모두 N_0 위치에는 인물명사만 가능한 것이 공통된 속성인데 좀 더 특기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가]의 경우 N_0 는 흔히 생략되고(예문 (46)) 명시적으로 실현될 때는 대화의 직접 참여자인 일인칭 (또는 이인칭) 복수 주어 우리(너희들)에 한정되는 듯하다(예문 (45)). (이인칭 주어의 경우는 예문 (74)를 볼 것)

[다]의 N_0 는 (49)가 보이듯이 동물명사를 용인한다.

[마] 구문은 결혼하다와 같은 대칭동사 구문과 유사하게 복수주어문과 단수주어문의 규칙적 대응으로 특징지어지고 이때 복수주어는 단수주어문의 N_2 -와 보어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 구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 후치사 변이 가능성

[가]~[마] 구문에서 C_1 에 뒤따르는 격조사 -을은 일반 자유구문에서처럼 적절한 조건으로 삭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바]의 경우는 C_1 뒤의 후치사가 -이^나로 고정되어 있다. 이 점은 [바] 구문을 특징짓는 속성의 하나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¹¹

¹¹ 특수조사가 고정되어 있는 구문을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본다.

xiv) ㄱ. 그 친구 요새 코빼기도 볼 수 없어.

ㄴ. 나는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는 처지다.

- 구문 사이의 대응

• 피동구문/능동구문의 대응

[가]~[바]의 먹다 구문은, 나머지 구문도 마찬가지로인데, 피동구문과 대응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동구문과의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 타동사적 숙어동사구문의 일반적인 속성은 아니다.

[가]~[바]의 먹다 구문처럼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목을 자르다/목이 잘리다와 같이 능동/피동의 대응이 가능한 숙어동사들도 있다.¹² 반대로 구멍이 뚫리다, 기가 막히다, 말이 먹히다와 같이 피동구문만 가능한 숙어동사구문도 존재한다. 따라서 능동/피동구문 사이의 대응여부는 숙어동사구문 기술의 일부로 체계적인 지적이 필요한 것이다.

• 사역구문/비사역구문의 대응

이 두 구문 사이의 대응에 대하여도 피능/능동구문 사이의 대응에 대해서와 똑같은 지적을 할 수 있다. 숙어동사구문이라고 해서 사역구문으로의 전환이 일률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I 유형의 경우 [나], [다], [마], [바] 구문에 대해서는 먹이다 구문이 불가능하지만, [라]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67) 그 녀석은 내가 꼭 붙잡아서 콩밥을 먹이고 말겠어.

[가]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구문이 가능할 듯하다.

(68) 영서야, 너 언제나 우리(에게+를) 국수 먹여 줄거니?

한편 파리를 날리다, N₂-에게 등을 돌리다, N₂-를 비행기를 태우다, 눈을 불이다 등은 사역구문만 가능한 숙어동사구문의 예가 된다.

• 기타 구문의 대응

[마] 구문은 다음의 일반 자유동사의 동반구문과 평행적이다.

(69) ㄱ. 우리는 어렸을 때 한 (동네+집)-에서 살았다.

ㄴ. 나와 철수는 어렸을 때 한 (동네+집)-에서 살았다.¹⁴

다음과 같이 목적보어 위치의 명사 분포는 개방되어 있으면서 후치사만 특정한 특수조사 만으로 고정되어 있는 알다 구문도 숙어동사구문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xv) 기환이는 (여자+돈+공부+자기 아들+영화...)-만 안다.

¹² 또 이를 갈다/이가 갈리다, 산통을 깨다/산통이 깨지다와 같은 대응쌍도 관찰할 수 있다.

¹³ 이 점은 일반자유동사 구문의 기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¹⁴ (52)에 대해서도 다음의 문장이 가능하다.

xvi) 나와 영서는 어린 시절 한 술밥을 먹고 자랐다.

ㄷ. 나는 어렸을 때 철수와 한 (동네+집)-에서 살았다.

(69) ㄱ~ㄷ 구문은 다음의 대칭구문과도 유사하다.¹⁵

(70) ㄱ. 그들은 (서로+E) 좋아했다.

ㄴ. 철수와 영희는 (서로+E) 좋아했다.

ㄷ. 철수는 영희와 (서로+E) 좋아했다.

두 구문의 공통성은 N-와 보어 구문과 복수주어 구문의 규칙적 대응에 있다. 다른 점 중의 하나는 대칭구문이 서로를 수의적으로 용인하는 반면, 동반구문은 서로를 거부하고 함께를 수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점이다.

(71) ㄱ. 우리는 어렸을 때 한 (동네+집)-에서 (함께+*서로) 살았다.

ㄴ. 나는 어렸을 때 철수와 (함께+*서로) 한 (동네+집)-에서 살았다.

[마] 구문은 (69) ㄱ~ㄷ이 보여주는 동반구문의 특징을 지닌 숙어동사 구문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다음에서 확인되는 대조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다.

(69) ㄷ'. 나는 어렸을 때 (철수와+*E) 한 (동네+집)-에서 살았다.

(72) 나는 어렸을 때 그 (동네+집)-에서 살았다.

(72)는 살다 동사구문에서 동반의 N-와 연쇄가 수의적인 점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러한 수의성을 동반의 N-와 연쇄의 일반적인 속성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69)ㄷ'에서는 N-와의 삭제가 비문을 야기시킨다. 이것은 구조적 특성이 아니고 바로 관형사 한의 작용이며, (73)에서도 마찬가지이다.

(73) ㄱ. 나는 (동생과+*E) 한 방을 썼다.

ㄴ. 나는 (동생과+E) (그+작은) 방을 썼다.

[마] 구문은 합성명사 한술밥을 내포한 까닭에 (72), (73)의 경우와 달리 명사 앞의 관형사/한정사의 자유로운 변이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단수 주어 구문에서 N-와의 연쇄가 필수적이다.

(52') *나는 어린 시절 한술밥을 먹고 자랐다.

따라서 [마] 구문의 기술에서는 이와 같은 점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¹⁶

— 문의 양태 moladité의 고정

¹⁵ 동반구문/대칭구문에 대해서 자세한 점은 홍재성 1987을 볼 것.

문의 양태의 고정성은 주로 P_c 유형이나 기타 유형의 숙어구문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속성이다. [타]ㄷ 구문은 의문문으로 고정되어 있고, (37), (38), (40)의 경우도 유사하다.

[타]ㄱ, [파]ㄱ, ㄷ은 대체로 명령문으로 고정되어 있고, 한편 (30)과 같이 의문문/명령문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문의 양태의 고정양상은 숙어구문의 고정부위를 한정하는 데 있어 주요한 관찰대상이 되리라 생각한다. I 유형 중 [가] 구문은 흔히 의문문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문문으로 고정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내포의문문으로의 전환을 포함하여 제한된 변이는 가능하다.

[가]의 경우도 다음이 용인될 듯하다.

(45') 영서야, 우리는 언제나 국수를 먹게 될지 (궁금하구나+기다려지는구나)!

(38), (40)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이 가능하다.

(38') 입은 두었다가 무얼 하려는지 답답하게 아무 말도 않고 있네.

(40') 이걸 누구 코에 바르려고 (사왔니+가져왔니)?

[가] 구문은 2인칭 복수주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서문으로의 사용도 가능할 듯하다.

(74) -영서야, 너는 아예 결혼은 안 할거니?

-걱정마, 너희들·곧 국수를 먹게 될테니까.

II 유형은 I에 통합될 수도 있는 유형이지만 고정부위의 -을 보어 위치에 눈칫밥이나 한술밥 같은 합성명사가 온 것이 아니라 명사 수식어 부분 N_2 가 열려져 있는 복합명사구가 나타난 점에서 일단 별도의 유형으로 분리하였다.

N_2 위치에는 외국, 서울 이외에도 미국, 프랑스 등 국명이나 파리, 뉴욕 등 도시명이 올 수 있다.

[사]의 N_2-C_1 은 전체가 고정부위를 구성하여, 다음의 (75)ㄱ에서와 같이

¹⁶ 유사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이다 숙어구문을 인용할 수 있다.

xvii) ㄱ. 그들은 (서로+E) 한통속이다.

ㄴ. 철수와 영희는 (서로+E) 한통속이다.

ㄷ. 철수는 영희와 (서로+E) 한통속이다.

대응되는 자유구문이 다음과 같이 가능하다.

xviii) ㄱ. 그들은 (서로+E) 한 (반+집안)-이다.

ㄴ. 철수와 영희는 (서로+E) 한 (반+집안)-이다.

ㄷ. 철수는 영희와 (서로+E) 한 (반+집안)-이다.

형태상으로 동일한 명사 물을 머리어로 하는 자유명사구와 동일시될 수 없다.

- (75) ㄱ. 서울-(의+E) 물이 특별히 더 깨끗할 리가 있겠니?
 ㄴ. 서울-(*(의+E)-물)을 좀 먹더니 촌티를 벗었구나?

이 때 N_2 -물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자유명사구의 그것과 평행적이다.

- (76) 이곳에는 (오렌지+초콜릿+수박+하늘+바다+...) -색을 칠해 볼
 까?

[사] 구문은 다음과 같이 사역구문이 가능할 듯하다.

- (77) 그 친구 서울물을 좀 먹여야지 촌티를 벗을거야.

II 유형의 설정은 2.2.5나 2.2.6 유형을 고려한 잠정적인 선택으로, I 유형과의 통합 여부는 열린 문제로 남겨둔다.

III 유형은 N_0 N_2 -을⁰ C_1 -을 V 로 표시되는 통사구조의 동일성에 의해 한데 묶인다. 고정부위로 한정되는 목적보어 이외에 제2의 자유보어를 용인하고, 이 제2보어에는 -을/-이가 아닌 후치격조사 -에게, 에게-(서+E), -에-(서+E) 등이 뒤따른다. C_1 위치의 명사에 따라 구별되는 [아]에서 [카]까지 다섯 개의 먹다 숙어구문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자유보어의 후치사 형태 및 변이가능성에 따라 다시 네 하위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III에 속하는 다섯 개 숙어구문의 구조를 가정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하나는 바로 제2보어를 한정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것은 N_2 -을⁰ 연쇄에 보어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언어학적 근거를 찾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는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물론 우리가 채택하는 분석은 이들 연쇄를 모두 보어로 보는 것이다.

[아]~[카] 구문의 N_0 위치에 모두 공통적으로 인물 명사 분포만이 가능하며, [바]를 제외한 I, II 유형의 숙어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C_1 뒤의 -을은 삭제될 수 있다. 또한 이들 구문은 모두 대응되는 피동구문이 불가능하고, 문의 양태의 고정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밖에 III에 속하는 구문의 속성으로 자세히 지적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먹이다 구문의 대응

[차]ㄹ의 녹을 먹다의 경우만을 제외하면 모두 먹이다 구문이 가능하다.

- (55') 이번 일로 영주가 기환이-(에게+를) 완전히 물을 먹인 셈이다.
 (56') 태환이가 철수-(에게+를) 꿀탕을 먹였다.

- (78) 태환이는 이번 시험에 미역국을 먹여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야 돼.
 (79) 기영이는 철수-(에게+를) 몹시 애를 먹였다.

그런데 이들 먹이다 구문은 두 가지로 구별을 해야 할 것 같다. (78), (79)의 경우는 대응되는 먹다 구문에는 나타나지 않던 별도의 논항이 주어로 실현되어 ((78)에서는 삭제되었음), 그것이 먹다 구문이 표상하는 사태를 유발하는 사역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80)의 예문들이 보이는 바와 같은 표준적인 사역구문을 구성한다고 보겠다.

- (80) ㄱ. 영희는 철수를 웃겼다.
 ㄴ. 그는 동생-(에게+을) 약을 먹였다.
 ㄷ. 영주도 자기 아들-(에게+을) 그 책을 읽혔다.

I 에 속하는 [가], [라]에 대응되는 먹이다 구문 역시 이러한 표준 사역구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55'), (56')에는 사역형 먹이다가 사용되었지만, 먹다 구문에는 외재적인 사역주로 해석되는 논항의 실현은 없고, 단순한 기존 논항의 통사적 전환만이 관찰된다. 예컨대 (55')에서 영주는, 물을 먹다 구문의 제2논항이 주어로 실현된 것이지 사역주의 의미해석을 갖는 물을 먹다에 외재적인 새로운 논항이 아니다. 따라서 숙어 동사구문의 통사적 속성으로 사역구문의 대응여부를 문제삼을 때 표준/의사 사역구문의 구별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이 일반자유구문의 기술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됨은 물론이다.¹⁷

－ 합성동사의 존재

III 유형에 속하는 숙어동사에 대해서는 [차]르의 녹을 먹다(*녹먹다)만을 제외하고, 모두 N-V 구조의 합성동사가 존재한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N-먹이다류의 합성동사도 가능하다.

- 물을 먹다 - 물먹다/물먹이다
 꿀탕을 먹다 - 꿀탕먹다/꿀탕먹이다
 미역국을 먹다 - 미역국먹다/미역국먹이다
 애를 먹다 - 애먹다/애먹이다

I, II 유형의 숙어동사는 합성동사와의 대응이 없다.¹⁸

¹⁷ 우리는 앞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일반 자유동사의 의사사역구문을 예로 들었었다.

- xix) ㄱ. 정환이는 그 업자에게서 뇌물을 먹었다.
 ㄴ. 그 업자는 정환이-(에게+를) 뇌물을 먹였다.
 xx) ㄱ. 철수는 (영희에게+영희의 말에) 속았다.
 ㄴ. (영희+*영희의 말)-은 철수를 속였다.

¹⁸ IV 유형의 [타]에 대해서는 엮먹이다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N-Post¹⁹ V형의 불연속적 구성과 N-V형의 연속적 구성 사이의 대응 여부는 규칙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사실은 사전/어휘부에 낱말이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규칙성을 보여주는 몇몇 숙어구문의 자료들이다.

- (81) ㄱ. 동이 나다 - 동나다
 김이 새다 - 김새다
 새끼를 치다 - 새끼치다
 바람을 맞다 - 바람맞다
 ㄴ. 간이 붓다 - *간붓다
 코가 납작해지다 - *코납작해지다
 이를 갈다 - *이갈다
 골로 가다 - *골가다
 죽을 만들다 - *죽만들다
 코빼기도 볼 수 없다 - *코빼기볼 수 없다
 ㄷ. *단 맛과 쓴 맛을 다 보다 - 단맛쓴맛 다 보다
 *재수에 음이 붙었다 - 재수 음붙었다
 *누워서 떡을 먹기 - 누워서 떡먹기
 *식은 죽을 먹기 - 식은 죽먹기
 *땅을 짚고 헤엄치기 - 땅짚고 헤엄치기

두 구성의 대응은 가능하면서 보어의 형태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 (82) N-의 흥을 보다/N-을 흥보다
 N-의 등을 쳐먹다/N-을 등쳐먹다
 N-이 줌-(이+을)먹다/N-을 줌먹다

Ⅲ의 숙어구문에서도 비슷한 예를 꿀탕을 먹이다/꿀탕먹이다 사이에서 볼 수 있을 듯하다.

(56')에 대해 (83)은 다음과 같이 대조를 이룬다.

- (83) 태환이는 철수-(*에게+를) 꿀탕먹였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점들도 숙어구문의 기술에서 지적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 후치사의 변이

¹⁹ Post는 후치사를 나타낸다.

숙어구문 내에서 격조사의 변이 가능성 역시 그 생략 가능성이나 또는 특수 조사의 고정성과 더불어 체계적인 기술의 대상이 되는 속성 중의 하나이다.

앞의 자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III의 숙어구문은 다양한 격조사의 변이 가능성을 보인다. 먹다 구문 이외에 추가로 몇 가지 예를 더 들어 본다.

- (84) ㄱ. 그 말에 나는 눈-에-(서+E) 붙이 냈다.
- ㄴ. 그는 뒤늦게 사랑에 눈-(이+을) 땀다.

숙어구문 [자], [차] 또는 (84)ㄱ~ㄴ에서 관찰되는 격조사의 변이는 일반자유구문에서 폭넓게 관찰되는 동일한 성격의 변이이다.

- (85) ㄱ. 철수는 영화-에게-(서+E) 돈을 꾸었다.
- ㄴ. 나는 첫번 시험에-(서+E) 기영이를 (이겼다+꺾었다).
- ㄷ. 태환이는 이마-에-(서+E) 식은 땀이 났다.
- ㄹ. 새로 옮겨 심은 나무가 벌써 뿌리-(가+를) 내렸다.

IV, V의 유형은 모두 문장 전체가 굳어져 있으나, 격언/속담과는²⁰ 구별될 수 있을 듯한 숙어구문을 한데 묶은 것이다. IV, V의 분리는 그 구조의 단순성 여부에 따른 것인데 이 구분 자체도 극히 잠정적인 것으로 더 많은 검토가 요구된다.

(62)~(65)를 위시하여, (37)~(44) 그리고 (1)ㄴ과 같은 유형의 숙어구문을 언어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속담·격언과의 가능한 구별의 문제 이외에도 통사구조의 한정, 특히 고정부위의 한정과 기술이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특히 (1)ㄴ, (42), (43) 또는 (44) 등 자유부위를 내포한 구문의 경우, 자유/고정 부위의 구조를 일반성 있게 형식화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고 보겠다.

[타]1~[파]2 구문에 대해 다음의 속성을 지적해 보자.

앞서 언급한 대로, 이들 구문은 대체로 문의 양태의 고정성을 보여 [타]2는 의문문, [타]1, [파]1, 2는 명령문으로 굳어져 있으나, 내포문화에 따른 종결어미의 변이 등 제한된 변이는 관찰할 수 있다.

²⁰ 먹다를 포함한 격언/속담은 다음에 인용하는 몇몇 이외에 상당수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기도 한다.

- xxi) ㄱ. 식은 죽도 불어가며 먹어라.
- ㄴ. 떡도 먹어 본 사람이 먹는다.
- ㄷ.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

IV, V 유형의 숙어구문을 다루기 위해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62)~(65)의 문장들과 격언/속담을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격언/속담 역시 숙어구문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격언/속담의 언어학적 연구로 이어지는 이 문제는 별도의 검토과제로 남겨둔다.

- (86) ㄱ. 날 보고 오히려 먹으라고? 나쁜 녀석, 너나 먹어!
 ㄴ. 영주는 뭘 잘못 먹었는지, 오늘 하루 종일 신경질만 내는데.
 ㄷ. 태환이도 빨리 냉수 먹고 속차려야지.
 ㄹ. 너 아무리 화가 나도 나한테 잘 먹고 잘 살라는 욕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니?

문장 전체가 굳어져 있다는 속성에는 양태의 고정 이외에 후치사의 고정 ([타]1에서는 -이나로 고정되어 있고, [파]1에서는 냉수 뒤에 -을을 회복시키는 것이 어려울 듯하다), 또는 시상어미의 고정이 포함될 수 있다. [타]2는 먹다의 과거형만을 용인한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 (87) ㄱ. 태환이는 엉덩이에 뿔이 (났어+*난다+*나겠는데+*날걸).
 ㄴ. 그 놈은 (간+간뎡이)-가 (부었어+*붓는다+*부울거야).
 ㄷ. 하도 우스워서 배꼽 (빠지겠다+*빠질거야+*빠진다+*빠졌다).
 ㄹ. 재수 (움블었다+*움블는다+*움블을걸).
 ㅁ. 철수 녀석 뱀이 (빠졌지+*빠졌었지+*빠진다+*빠질거야+*빠지겠는데).

그러나 이러한 고정성은 물론 숙어구문의 일반적 속성은 아니어서 대부분의 경우 숙어구문이라 해도 이 제약은 보이지 않는다.

- (88) ㄱ. 기영이를 설득하자면 꽤나 애를 먹-(을 거야+졌는데).
 ㄴ. 그렇게 하다가는 너만 계속 애를 먹는다.
 ㄷ. 그때 너도 그 친구 때문에 애 많이 먹었었지?

한편 (35)에서처럼 P_c 유형으로 특정지을 수 있는 구문에서도 양태제약은 있어도 시상어미의 분포는 부분적으로 열려 있는 예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상어미의 고정성은 숙어동사구문의 개별적 속성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숙어동사구문의 특이한 개별적 속성으로 동사 어휘의 변이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점은 [파]1의 경우에 관찰된다. [파]1에서 명사는 동의어 대치가 불가능하지만, 동사는 가능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 (89) (냉수+*찬물) (먹+마시)-고 속차려.

이 점에서 [파]1은 [사]나 [아]와 대조된다(이에 대해서는 앞의 각주 10)의 예문 xii)을 볼 것). 물론 숙어구문에서 이와 같은 동사를 포함한 어휘요소의 가능한 변이도-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생략 가능성을 포함

하여-사전/어휘부에서 낱말이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더 예를 들어 본다.

- (90) ㄱ. 너는 이제 이 일에서 (손을 떼라+발을 빼라).
 ㄴ. 그것은 너무 속이 (들여다+E) 보이는 것이야.
 (91) ㄱ. 자금이 (동+바닥)-이 났다.
 ㄴ. 나는 (눈+머리)-가 빙빙 돌았다.
 ㄷ. 이제부터 (허리+허리띠)-를 잔뜩 졸라매고 살아야 돼.
 (92) ㄱ. 너무 시끄러워서 귀-(창+E) 떨어지겠다.
 ㄴ. 나는 그에게 (두+E) 손 들었어.
 ㄷ. 정희는 정말 (머리가+E) 들었어.

4. 맺는 말

우리는 이 글에서 범용적인 한국어 어휘자료체 구축을 염두에 두고 먹다 동사를 예로 가능한 숙어동사 구문을 총망라하여 한정하고 그 동사·어휘적 속성을 기술하는 문제를 간략히 다루어 보았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지 못하고 제기만 하거나 언급만 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서 채택한 방향과 방법에 따른 연구가 한국어 일반 언어사전이나 동사구문사전의 편찬에 필수적인 체계화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숙어구문이 언어학적 연구나 이론적 어휘부 구성 작업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작업의 전체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 가능한 모든 한국어 동사 어휘를 대상으로 하는 총체적인 언어학적 기술;
- 개별 동사어휘 하나하나의 가능한 용법의 총망라적인 체계화;
- 숙어구문에 대한 일반 자유동사구문의 기술과 동일한 성격의 통사·어휘적 기술(이것은 통사구조와 고정부위 표상에 의한 숙어구문의 형식적인 한정과 유형화 및 개별 속성의 기술을 포함한다).

참고문헌

- 김문창(1990) '관용어,'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김영석·이상억(1992) 현대형태론, 학연사.
 심재기(1986) '한국어 관용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관악어문 11.

- 안경화(1986) '한국어 속어 유형에 대한 분석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상억(1992) '관용표현과 합성어의 분석 및 어휘부 내에서의 처리,' '전산처리를 위한 국어 관용표현 연구,' 26회 어학연구회,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이정민(1992) '관용표현의 논항구조,' '전산처리를 위한 국어 관용표현 연구,' 26회 어학연구회,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조선어학연구실편(1984-85) '조선어 관용구집 상·하,' 동경 외국어대학 국어교육연구협의회.
- 한정길(1986) '속어표현에 대하여,' 어학연구 22-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황희영(1978) '국어관용어 연구,' 성곡논총 9.
- 홍재성(198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 연구, 탑출판사.
- 홍재성(1992a) '한국어 관용표현 연구의 한 시각,' 국어학회 제19회 공동연구회.
- 홍재성(1992b) '동사 먹다의 사전적 처리를 위한 몇 가지 논의,' 새국어생활 제2권 4호.
- 홍재성(1993a) '사전과 통사론-동사 빠지다의 사전적 기술을 위하여(I)-,' 인문논총 29,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홍재성(1993b) '동사 빠지다의 사전적 기술을 위하여(II),' (준비중).
- 홍재성(1993c) '약속의 문법: 서술명사의 어휘·통사적 기술과 사전,' 동방학지 90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홍재성(1994) '한국어 관용표현의 통사론적 기술,' (준비중).
- Danlos, L. (éd.)(1988) 'Les expressions figées,' *Langues* 90.
- Di Stefano et R. MacGillivray (1985) 'La locution,' *Le Moyen Français* 14-15, CERES.
- Gross, M. (1982) 'Une classification des phrases figées en français,' *Revue Québécoise de Linguistique* 11-2.
- Gross, M. (1990) *Grammaire transformationnelle du français 3: Syntaxe de l'adverbe, Asstril*.
- Gross, M. (1991) Les principes de la représentation des formes figées dans le lexique-grammaire du français (manuscrit).
- Mel'čuk, I. (1984, 1987, 1992)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Vols. I, II, III*, Presses Universitaires de Montréal.

RESUME

Description lexico-syntaxique
des phrases figées à məkta (manger)

Chai-song Hong

Dans le présent article, nous nous sommes proposé de donner une description lexico-syntaxique des phrases figées construites avec le verbe coréen məkta (manger). Cela constitue un deuxième volet du travail qui porte sur ce verbe, la première partie étant consacrée à l'analyse des trois autres catégories de ses emplois: verbe ordinaire libre, verbe support et verbe auxiliaire.

Ce travail se situe dans le cadre général d'une tentative pour construire une base de données lexicales des verbes coréens.

A cette fin, nous avons d'abord présenté le système de classification provisoire que nous adoptons pour la description des phrases figées en coréen. Ensuite, nous avons déterminé 16 phrases figées comportant le verbe məkta, en les regroupant dans cinq classes syntaxiques. Enfin, nous avons analysé les principales propriétés lexico-syntaxiques—propriétés distributionnelles et transformationnelles—de chaque phrase figée.

Le principe que nous appliquons dans ce travail pour la détermination et la caractérisation strictement syntaxiques des expressions figées est le même que celui du lexique-grammaire de M. Gross: décrire la structure et les propriétés des phrases figées de la même manière formelle que les phrases simples libres.

Ce type de travail constituera un élément indispensable pour la construction d'une base de données lexicales concernant les verbes coréens, laquelle peut être exploitée de façon très large en offrant un ensemble de données linguistiques empiriques systématisées de grande envergure.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